

## 쿠팡 공급업체 및 경쟁사, 쿠팡맨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2019. 6. 28.

최근 쿠팡이 공급업체, 경쟁사 및 쿠팡맨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쿠팡 관련 최근 논란은 다음 세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공급업체 관련** 논란입니다. 쿠팡은 유통사로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LG생활건강이 당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쿠팡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공급업체는 물론, 쿠팡의 존재 기반인 고객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둘째, **경쟁사 관련** 논란입니다. 위메프는 자신들의 광고에 쿠팡의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당사의 최저가 상품에 대한 거짓 광고를 통해 쿠팡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쿠팡과 직접 거래 관계도 없는 위치에서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당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뒤 이제는 언론을 상대로도 당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쿠팡맨 관련** 논란입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쿠팡지부와 노사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조가 협상장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벌이며 협상을 중단시켰고, 이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비난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쿠팡은 공급업체 관련 업무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1. 쿠팡은 LG생활건강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LG는 쿠팡이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LG생활건강이 이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LG생활건강의 2018년 매출(약 6.7조 원) 가운데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단 1%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쿠팡은 468조 원 규모의 국내 소매유통시장<sup>[1]</sup>에서 4.4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여러 유통사 중 한 곳일 뿐입니다.

2.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건은 쿠팡이 주문 취소 의사를 밝힌 3일 뒤,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약 40만 원 어치의 상품을 당사로 임의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양사 계약에서 이미 논의된 정당한 광고상품 판매입니다. 쿠팡은 국내 최대 트래픽을 가진 이커머스 1위 업체로 상품 광고효과가 높습니다. 대형서점에서 '주목할 만한 신간' 매대 광고를 판매하고,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기대작 예고편 광고를 판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배타적 거래 또한 당사는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3. 쿠팡의 사명은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상품을 갖추고 이를 가장 싼 가격에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쿠팡은 중간 유통업자 없는 공급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하며, 대량 주문으로 낮은 단가를 요청합니다. 또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국내 주요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해 가격을 최저가에 맞춰 변경합니다. 쿠팡의 보도자료 제품 가격이 1만2345원 식으로 표시되지 않고 1만2천원대 식으로 제공되는 까닭입니다. 공급업체는 이 협상에서 더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쿠팡은 고객을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이 협상은 잘잘못을 가릴 일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고객은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사게 될 것입니다.

[1] 유진투자증권, 2018. 11. 19. [https://www.eugenefn.com/common/files/amaill/20181119\\_B2530\\_jyh5683\\_206.pdf](https://www.eugenefn.com/common/files/amaill/20181119_B2530_jyh5683_206.pdf)

## 쿠팡 경쟁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쿠팡은 소매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약자이지만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업계 1위를 자랑합니다. 위메프는 이런 쿠팡의 인지도를 자사 광고에 부당하게 활용했습니다. “가격은 위메프, 배송은 쿠팡”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500만 가지의 상품을 직매입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제품가에 반영시키는 쿠팡은 수십 수백 개 수준의 상품에 할인쿠폰을 붙이는 경쟁사들과 달리 ‘진정한 최저가’를 지향합니다. 실시간 매칭을 이해 못한 위메프의 다음과 같은 광고를 참고 바랍니다. 8850원의 쿠팡 상품보다 9900원의 위메프 상품이 싸다고 잘못 광고하고 있습니다.



2. 위메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부당 전가했고, 경쟁채널 판매중단을 초래했으며 유통업계의 가격경쟁을 막아 경쟁사·납품업체·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공급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설사 쿠팡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최저가를 설정해 고객이 최저가를 찾기 위해 가격검색을 하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3. 즉, LG생활건강과 위메프의 주장은 결이 같습니다. 쿠팡은 국내 최대 트래픽을 가진 이커머스 1위 업체로 상품 광고효과가 높기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지만 이것은 할인비용 부당 전가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공급사에게 경쟁채널 판매중단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들이 가격 보호를 위해 쿠팡에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이 아닙니다. 쿠팡은 언제나 고객들에게 최저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천 명의 개발자를 채용하여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쿠팡맨은 안정적이고 좋은 작업환경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 쿠팡이 일하기 힘든 곳이라는 쿠팡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쿠팡맨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현재 쿠팡맨 인원 4600명 이상)

2. 쿠팡맨이라는 일자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좋은 직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대 보험과 연 평균 41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는 물론, 주 5일 근무, 주 52시간 근무 및 다양한 복지혜택(가족까지 커버되는 실손보험, 회사 휴양지 이용 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되어 배송에 능숙한 직원들은 성과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의 성과급도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 택배 기사들과는 달리 차량, 유니폼 및 배송용품 등을 회사가 구입해 제공하며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합니다.

3. 또한 쿠팡맨에게 쿠팡은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것입니다. 계약직의 계약 해지 사유는 음주운전, 안전미준수 사고, 무단결근 등 중대한 문제점에 한하며,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정규직 심사 대상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90% 이상입니다. 쿠팡은 오히려 쿠팡맨의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배송 업무가 힘들어지는 여름에는 얼음물과 이온음료, 아이스박스 및 쿨스카프와 쿨토시 등 더위를 막기 위한 용품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방한모와 기모바지 등을 포함한 방한복을 제공

합니다.

4. 노조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쿠팡은 21차에 걸쳐 성실하게 교섭을 하면서 쿠팡맨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교섭에서 쿠팡맨 노조가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욕설, 반말 등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므로 노조에 재발방지를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단체교섭 재개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정작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노조 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